

국어 영역

1. ⑤	2. ⑤	3. ④	4. ②	5. ⑤
6. ⑤	7. ②	8. ③	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②	14. ②	15. ①
16. ②	17. ③	18. ⑤	19. ⑤	20. ④
21. ⑤	22. ③	23. ⑤	24. ⑤	25. ④
26. ③	27. ⑤	28. ④	29. ⑤	30. ①
31. ⑤	32. ③	33. ②	34. ②	35. ③
36. ③	37. ②	38. ⑤	39. ④	40. ③
41. ⑤	42. ④	43. ④	44. ⑤	45. ④

【1~5】(화법)

- 마지막 문단에서 구체적인 캠페인 방법과 그 의의 등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캠페인과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 연설문의 초반부에 학생들의 식사가 불규칙한 것에 대한 우려를 캠페인 제안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들의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연설문의 초반부에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등교했습니까?'라는 화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아침밥 결식률이 높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 둘째 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아침 식사와 관련한 학생들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 셋째 문단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건강 측면의 유의한 점과 학교생활을 잘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반대 1'은 학력을 기재하는 기존 방식을 금지하면, 면접 등 다른 평가 방식을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즉 효율성의 측면을 들어 기존 방식의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 [A]는 상대측이 제시한 방안(학력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이 기대하는 효과(과도한 사교육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음)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반대 측은 입론에서 학력만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입사 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 찬성 측은 입론에서 학력 중시 풍토의 주요 원인으로 학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잘못된 채용 시스템을 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으로 인해 학력 중시 풍토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찬성 측은 입론에서 학력 중시 풍토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찬성 측은 두 번째 발언에서 찬성 측은 ㉠의 금지와 더불어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반대 측은 입론에서 학력이 지원자의 전공과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이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10】(작문)

- 초고에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 ㉠의 내용은 둘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의 내용은 첫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의 내용은 셋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의 내용은 넷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윗글에서 미세 먼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소개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지 않았다. 윗글에는 통계 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 ㉠에서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미세 먼지의 성분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미세 먼지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 정책이 아직도 60, 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현재의 환경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을 근거로 미세 먼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여야 함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 ㉤은 학교에서 미세 먼지에 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세 먼지의 위협 수준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 [A]의 둘째 문장의 주어 '정부는'과 서술어 '파악되어야 하며' 간의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색하다. 또한 대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서 화력 발전소의 대형화나 자동차 산업 이외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이 적절하다.
 - 학생이 일기를 쓴 것은 고민을 털어 놓기 위해서였다. 작가가 되고 싶어진 것은 일기를 쓰면서 글쓰기의 힘을 알게 된 이후의 일이다.
 - 셋째 문단 마지막 부분 '제가 느낀 행복과 기쁨을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는 멋진 작가가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문단에서 고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 둘째 문단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 글쓰기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셋째 문단에서 다양한 축제, 전통 시장, 고궁이나 공원 등을 찾아 소개를 얻는 것이 창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은 어미의 사용이 문맥상 적절하다. 앞뒤 문장이 역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있지만'으로 바꾸면 더 어색하다.
 - 【11~15】(문법)
 - '열다'의 경우 활용형의 어간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닫다'의 경우 활용형의 어간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겉옷'을 [거뿔]으로 발음하는 것은, 첫음절 '겉'의 뒤에 연결된 '옷'이 '노'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겉'의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미닫이'를 [미닫이]로 발음하는 것은, 둘째 음절 '닫'

- 의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면서 'ㅌ'으로 바뀌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운이 축약된 것이 아니라 교체된 것이다.
 - '색연필'을 [생년필]로 발음하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ㄷ'인 경우, 'ㄷ'을 첨가하여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운이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금용'을 [금냥]으로 발음하는 것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ㄴ'인 경우,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운이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표기대로 발음하여 [그냥]으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금용'은 19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칼날'을 [칼랄]로 발음하는 것은, 'ㄴ'이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의 '쁘들'은 명사 '쁘'와 조사 '을'을 연결 표기한 것이며, ㉢의 '바르매' 역시 명사 '바름'과 조사 '애'가 결합한 것으로 명사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은 연결 표기이다. 한편, ㉡의 '사름이니'는 명사 '사름'과 조사 '이니'를 구분하여 적은 분절 표기이며, ㉣의 '붉은' 역시 어근 '붉-'과 어미 '-은'을 구분하여 적은 분절 표기이다.
 - '선무당'의 접두사 '선-'은 '서툰', '충분치 않은'의 뜻을 더해주고, 관형사와 비슷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한정적 - 셋노란 : 노랗다(형) → 셋노랗다(형)
지배적 - 알맞은 : 맞다(동) → 알맞다(형)
 - 한정적 - 맨손 : 손(명) → 맨손(명)
한정적 - 막일 : 일(명) → 막일(명)
 - 지배적 - 강마른 : 마르다(동) → 강마르다(형)
한정적 - 알맞은 : 굿다(형) → 알맞다(형)
 - 지배적 - 엷되어 : 되다(동) → 엷되다(형)
지배적 - 걸맞게 : 맞다(동) → 걸맞다(형)
 - 한정적 - 구슬픈 : 슬프다(형) → 구슬프다(형)
한정적 - 군소리 : 소리(명) → 군소리(명)
- 【16~20】(인문) 황현택, 피어스 기호론과 심볼 마크의 이해
 - 윗글은 기호에 관한 두 이론, 즉 소쉬르의 이원론과 퍼스의 삼원론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이론의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가 적절하다.
 - 윗글에서 기호학과 다른 학문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단지 퍼스의 삼원론이 많은 학문 분야에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윗글에서 기호학의 발전 과정을 시기를 구분해 가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윗글에서 기호학이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윗글에서 기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단지 기호학이 후대의 학문에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체로 보고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기>의 '예름슬레브' 역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전제로 하여 의미 작용의 2단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가 의미를 전달하

는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㉓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 ① 기표와 기의를 활용한 2단계 모델을 제시한 것은 예름슬레브이고, 현실 적용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은 없다.
- ② 두 사람 모두 기표와 기의의 결합 과정에서 새로운 기표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두 사람 모두 기표가 바로 기호화되는 것, 기의가 바로 기호화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 ⑤ 두 사람 모두 기표와 기의의 결합 과정에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없는 기호가 의사소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8. 윗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상징'은 사회적 약속이나 관습적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이나 법칙 기호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림 5]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의식적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경험을 떠올렸다면, 이는 [그림 5]를 '상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① [그림 1]을 보고 '꿀꿀'하는 돼지 울음소리를 떠올린 것은 시각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기호를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을 도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그림 2]를 보고 권력을 떠올리는 것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를 '지표'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그림 3]을 보고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떠올리는 예수의 사랑을 떠올린 것은 사회적 약속이나 관습적 문화로 기호를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을 '상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그림 4]를 보고 연상되는 화제의 위험성을 떠올린 것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4]를 '지표'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넷째 문단에서, 퍼스의 삼원론은 많은 학문 분야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㉓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첫째 문단에서, 20세기 이후의 기호학은 소쉬르와 페르스라는 두 명의 기호학 창시자가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 ② 넷째 문단에서, 퍼스는 해석 기호, 논항 기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해석체라고 하였다.
- ③ 첫째 문단에서, 그리스 시대에 기호학이 탄생하였고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하였다.
- ④ 넷째 문단에서, 퍼스는 표상체보다 좀 더 복잡하여 기호에 의해 표상되는 대상체를 직접적 대상체라고 하였다.

20. ㉑의 문맥적 의미는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㉔이다.

- ① (세균이 병을)나게 하다.
- ② (사람이 어떤 일을)빛지나 벌이다.
- ③ (사람이 학교나 회사, 기관 따위를)처음으로 세우다.
- 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몸, 또는 사물 따위를)늘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게 하다.

【21~23】(현대 소설) 한승원, '어머니'

21.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와 행동, 사건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 ① 회상을 통해 갈등 해소의 단서를 제시한 부분은 없다.
- ② 삽화 형식을 통한 나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현재형 어머니 아닌 과거형 어머니 사용되었다.

22. ㉑에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 혹

시라도 아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마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① ㉑은 둘째 아들 이현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현이 일을 하고난 품삯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거두어들이고 나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산 너머 마을도 먹을 것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씨름판이 열릴 때마다 송아지를 끌어오곤 했다는 점에서 막둥이가 원래 힘이 좋은 인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④ 어머니가 '허가 걸걸하도록' 잠시 몸을 피하라고 아들을 설득했다는 점에서 아들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⑤ 막둥이가 어머니의 하소연에 어찌지 못하고 노비 몇 닢을 구해달라고 했다는 점은 어머니의 말대로 잠시 몸을 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마을 사람들이 마름이나 참봉 집에 색깔이를 얻으러 갔다가 거절을 당한 것은, 못갈림 농사지은 것을 모두 떨어 버려야 할 정도로 이미 값야 할 곡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못갈림 농사지은 것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마름이 못갈림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① 순사들이 마름영감을 앞세우고 아들들을 잡으러 왔고, 마름영감의 손가락질 하나로 아들을 징병이나 징용에 보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제에 협력하는 데 마름이 앞장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② 일현의 부르짖음에 많은 사람들이 허영계 일현의 뒤를 따랐다는 점에서 마름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③ 차라리 아들이 징용에 끌려가서 녀석하는 못 먹더라도 때나 거르지 않게 내버려 둘 것을 그랬다 하며 후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농민들이 처해 있었던 궁핍한 상황을 알 수 있다.
- ④ 자운영 밭을 열선거리다가 머리채를 잡힌 아낙네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마름은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자신의 밭을 탐내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4~26】(고전 소설) 작자 미상, '매화전'

24. 매화의 신분에 대해 듣고 낙담해 있던 양유는 매화의 편지를 받고 그녀가 사대부의 후예가 분명하다 생각하고 매화에게 답장을 보냈다.

- ① 조 병사는 매화가 여자임을 알고 매우 놀라고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하며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② 양유는 조 병사의 말을 통해 매화가 여자임을 알고 한탄하였다.
- ③ 최 씨는 조 병사가 연화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을 불러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퍼뜨리도록 지시하였다. 최 씨가 조 병사를 연화동으로 가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다.
- ④ 매화가 천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며 구박한 것은 최 씨로, 매화 스스로 천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인식하거나 이를 감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매화는 남의 집에 의지하여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낙담하였다.

25. <매화전>에서 매화는 조 병사의 딸이 아니므로 전처 소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최 씨는 자신의 동생과 매화를 결혼시키려고 매화와 양유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혼사 장애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매화의 근본을 확인하기 위해 연화동을 찾기도 최 씨의 계략에 넘어가는 조 병사의 어리숙한 모습에서 무기력한 가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을 퍼뜨려 자기 뜻을 관철하

는 최 씨의 모습에서 악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양유가 최 씨의 계략으로 위기를 겪고 부친을 원망하는 것은 조 병사가 계모를 들임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므로 여기에서 부자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26. [B]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꾀꼬리에 비유하여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A]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① [A]와 [B] 모두에서 매화라는 이름은 자연물이자 인물을 가리키는 중의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달, 구름, 매화, 눈, 수양버들 등의 자연물을 통해, [B]에서도 달, 구름, 눈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④ [B]는 '따뜻한 봄철'이라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A]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A]에서 명령적 어조를 찾을 수 없다.

【27~29】(현대시)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27. 화자는 현재 부재한 대상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 간절함 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①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③ 화자가 너와의 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화자는 나뭇잎, 문 등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나 속성이 비슷한 사물이 나열되지는 않았다.

28.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는 현재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의 간절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화자의 의지와 태도에 비쳐 볼 때 대상과 만남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는 '너'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를 일반적인 사람들도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③ 화자가 현재 있는 장소는 화자가 '너'와의 만남을 예정된 장소로, 이는 '너'와 만남이 이루어져 기대감과 행복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⑤ 기다리는 '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가고 있다'로 표현함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9. 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는 대상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인 화자가, 주변 사물에서 비롯되는 청각적 자극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㉒에서 '다시 문이 닫힌다' 역시 문의 개폐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화자를 드러냄으로써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㉑과 ㉒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사물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0~32】(희곡) 이근삼, '국물 있습니다'

30. 문 여사가 나간 후 상범은 특정 소재인 '돈 보따리'를 꺼내 들고 극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앞선 사건의 전말과 인물의 내면 등이 관객에게 전달되고 있다.

- ② 인물이 다른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행동이 반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대사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상범을 중심으로 문 여사와 상범의 대화, 상범의 독백, 상범과 상출의 만남 등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극중 시간의 흐름이 역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돈 보따리', '의자'와 같은 소품을 활용하여 장면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으나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무대의 신속한 전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31. ㉠은 상범의 제안을 상출이 거부할 표현한 것이나, 이는 상범의 제안에 내포된 비윤리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제안의 실행 가능성, 적절성 등에 대한 부동의를 드러낸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문 여사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노출시키고 있다.
 - ② 상범은 문 여사와의 대화를 통해 아파트 관리인이 자신에게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 ③ 상범은 자신의 아파트 관리인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이유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들고 있다.

32. [B]에서 상범이 상출과 만나기로 하는 것은 상범이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기>에 의하면 이것은 객석과 분리된 시공간으로서의 무대의 한계를 벗어나 관객이 극중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무대를 객석과 분리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A]에서 상범이 관리인이 맡긴 5만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상범이 관리인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이유와 상출에게 돈을 주려는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② 브레히트의 서사적 해설자는 극중 인물과는 별도로 존재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극중 현실을 낯설게 보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극중 인물인 상범은 브레히트의 서사적 해설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A]와 [B]에서 상범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보기>의 둘째 문단에 의하면 극의 인물이 서사적 해설자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상범이 관리인의 돈을 쓰겠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내면의 표출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인물이 극중 인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3~36】(과학) 예방일, '기생충과 알레르기'

33. 이 글은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과정과 알레르기 질환이 지닌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생충 감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지닌 특성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치료 사례도 기술하지 않았다.
 - ③ 다른 질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 ④ 알레르기 질환의 지역별 분포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⑤ 알레르기 질환의 폐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34.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의 IgE는 비만 세포와 결합해도 히스타민을 분비하지 않는다. 비만 세포와 결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① IgE는 비만 세포와 결합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므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 ③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항체가 잘못 작용하며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으로 셋째 문단의 '즉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하는 항체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인데'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보건 위생 환경이 좋은 선진국의 알레르기 환자가 많다.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거나 기생충에 감염되면 IgE의

수가 많아진다. 지문의 '인체에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면역 작용을 위해 항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질환에 걸려도 항체 IgE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기생충에 감염되면 조절 B세포에서 분비되는 IL-10의 수가 늘어나고, IL-10는 비만 세포의 히스타민 분비 및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억제한다. 따라서 조절 B세포의 활성화는 증가한다.
- ① IL-10은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분비되는 것이므로 IL-10이 늘어나면 당연히 히스타민 분비가 줄어든다.
 - ②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IL-10이 분비되어 히스타민과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므로 뇌졸중의 증상이 완화된다.
 - ④ 지문에서 '만손주혈흡충'이 기생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기생충에 감염되면 IL-10의 분비가 증가하여 염증성 물질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했으므로 ④는 적절하다.
 - ⑤ 지문과 <보기>를 종합하면 기생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통해 IL-10의 생산을 늘리고 비만 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위생 가설은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는 사람의 장에 서식하는 병원균, 특히 기생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에서는 기생충 치료가 이루어지자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 이해하면 '기생충 감염이 감소하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37~42】(사회) 이명천, 김요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37. 이 글은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기법 등)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기법(위협 소구, 유머 소구, 패러디 소구, 온정 소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① 여러 광고 크리에이티브 기법을 소개한 것은 맞지만, 광고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매체에 따른 광고의 특성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④ 제품 광고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했지만,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⑤ 제품 광고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나열하지 않았다.

38. 위협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위협이 해소된다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 지문의 '위협 소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협을 주어 관심을 유도한 후 자신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그러한 위협을 확실히 해소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여 소비자의 수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① 마케팅 전략이 결정된 다음 어떤 소구를 사용할지 선택한다.
 - ② 유머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광고의 효과가 빨리 소멸된다.
 - ③ 위협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소구로 소비자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 ④ 광고를 제작할 때에는 예술 작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패러디 소구를 사용한 광고이다.

39. 지문에서 '소멸'은 '사라져 없어짐'의 뜻이지만, ④에서는 '불살라 없애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40.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 큰 조각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광고는 온정 소구를 사용한 광고이다.

41. 비교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자신의 브랜드와 상대 브랜드의 이미지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의 열세를 만회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므로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상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2. 위협 소구를 사용한 광고는 위협의 수준이 적절할 때 광고의 효과가 가장 높다. 그리고 수준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광고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지문의 '위협 수준이 너무 낮다면 정서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아서 광고물이 근본적인 문제에 주의를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위협 수준이 너무 높으면 소비자는 자기방어를 위해 광고 자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45】(고전 시가) 이휘일, '전가팔곡'

43. 4수의 '무슴하리오', 8수의 '무슴하리오' 등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화자는 이를 통해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태도, 즉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이 시에는 농가에서 일하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비현실적 상황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이 시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도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이 시에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44. 5수에서, 초가집을 정비하고 농기를 관리하는 것은 농촌의 겨울 풍경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수에서, '세상'은 화자가 떠나 온 곳이다. 화자는 이곳을 떠나 농촌에 귀의하였다.
 - ② 2수에서, '압집'과 '뒷집'이 함께 농사일을 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적 삶을 떠올릴 수 있다.
 - ③ 3수에서, 농민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노고를 알 수 있다.
 - ④ 4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맛이 좋다고 하였다. 이는 스스로 일궈낸 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은 바깥의 일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세속의 일을 뜻한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바깥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농사일을 하며 늘어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화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는 가을에 걷어 들인 곡식을 말한다. 화자는 이 곡식을 보고 좋다고 좋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는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